

폐·기관지에 만성 염증...흡연이 가장 큰 원인



건강 바로 알기
만성폐쇄성폐질환

손지영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호흡기센터장

이제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호흡기질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통 3월부터 높은 수준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는 경향이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는 각종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자가 매우 작아 인체 깊은 곳까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폐에 유입된 유해요인은 염증을 유발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폐암만큼 무섭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 기도가 좁아지고 폐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흡연, 유해가스 노출, 공기오염 등으로 폐와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생겨 발병하며 특히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

국내 45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에서 발병하며 환자 70-80%는 흡연과 연관된다. 비흡연자는 결핵과 전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발병 시 폐기능 저하와 호흡곤란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45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 발병
호흡곤란·기침 계속되면 의심
초기 증상 없어 정기점검 중요
황사·미세먼지 심한 봄철 요주의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10대 사망원인으로 COPD가 3위를 기록했는데 2050년에는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2020년 국내인구 10만명당 11명이 COPD로 사망해 사망원인 11위를 차지할 만큼 위중한 질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0세 이상 유병률은 13.3%, 70세 이상은 48.5%로 노년층 유병률이 매우 높다. 대부분 초기 증상은 거의 없지만 폐기능이 30-40% 떨어진 상태가 되어 발견될 만큼 조기발견과 대응이 매우 어려워 정기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특히 발병은 흡연 후 10년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흡연을 해 온 중년층 남성 발병률이 높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손지영 호흡기센터장은 "호흡곤란, 기침이 계속되면 COPD를 의심할 수 있다. 초기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가래, 흉부불편감과 답답함 등이 생기고 중증이 되면 기침,가래가 늘어나고,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속도가 느리며, 숨이 차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COPD는 X-ray 및 폐기능 검사로 증증상태, 타 질환여부 확인, 폐활량 측정으로 진단하며 진료를 통해 흉과 앞뒤가 불룩해지는 '숯통형 흉곽' 여부를 확인한다. COPD 치료율은 84.7%로 고혈압(61.7%), 당뇨병(60.8%)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선제 예방으로 충분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관지 확장제 등 약물치료와 신체운동

등 호흡재활치료를 시행한다. 손지영 센터장은 "한번 손상된 폐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금연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간 흡연을 하게 되면 폐세포 손상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폐기종이 발생하여 COPD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최범채 시엘병원장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광주시엘병원 최범채(사진) 원장이 '제 56회 납세자의 날' 맞아 최근 김대중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자격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모범이 되는자에게 국가가 1년에 한번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시엘병원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 초저출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건강과 난임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시엘병원은 납세외에도 대한민국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여러 의과대학에 장학생 선발과 기부를 해왔으며, 해외 젊은의사들에게 최고의 난임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엘병원 최범채 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로 추천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여성의 건강과 난임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ESG경영 철칙에 따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 아태 심장학회 강연

한국인 심근경색증 연구 주제
일 순환기학회에서도 화상강의



정명호 교수는 "이번 아태 태평양 심장학회 및 일본 순환기학회 초청 강연으로 전남대병원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한국인 심근경색증 환자의 예방·치료법을 소개, 아세아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 순환기내과 정명호(사진) 교수가 오는 11-1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되는 아세아 태평양 심장학회와 일본 순환기학회에서 한국을 대표해 초청 강연을 한다.

정 교수는 11일 아세아 태평양 심장학회에서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KAMIR) 현황' (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 insight from Korea)을 주제로 화상 강의를 한다. 또 일본·호주·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의료진과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12일에 열리는 일본 순환기학회에서는 일본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 '16년간의 KAMIR 임상 연구 경험' (Sixteen-year clinical experience of KAMIR)을 주제로 화상 강의를 진행한다.

심근경색증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KAMIR 연구는 2005년부터 8만여 명의 환자를 등록했고 현재까지 363편(SCI 334편)의 논문을 발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일본은 KAMIR를 본받아 지난 2013년 오사카 국립순환기센터 주축으로 JAMIR 연구팀을 결성해 한국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KAMIR-JAMIR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현대병원 갑상선암센터 윤정한원장 취임

유방암의 권위자로서 화순전남대병원 내분비외과(유방암,갑상선암 중앙클리닉) 교수로 정년퇴임한 윤정한(사진) 교수가 광주현대병원 유방·갑상선암센터 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정한 암센터장은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내분비외과교수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후학을 교육해 왔으며, 한국 유방암 학회와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양대 학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GBCC 국제유방암학회회장 및 아시아내분비외과 학회장으로 국제학회를 개최해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지난 33년간 전남대병원에서 1만 7000여건의 수술과 연간 2000건 이상을 수술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유방암 및 갑상선암 권위자로 인정받아 수많은 강연과 교육을 통해 의학발전과 후학 및 후배 의사들의 교육에 이바지했다.

지난 2월 말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직을 정년퇴임하고 광주현대병원 센터장으로 취임한 윤정한 원장은 유방질환, 갑상선질환 분야 전문으로 유방암 치료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대치과병원 3월 한달간 김명주 작가 초대전

전남대치과병원(원장 조진형)이 코로나로 닫혔던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한다.

6일 전남대치과병원에 따르면 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3월 한달간 초대작가 김명주 작가의 'MIRACLE II 인생보따리' 초대전이 열린다. 김명주 작가는 "이번 전시된 그림은 모란도, 연

화도, 십장생도, 금강산도, 미인도, 일월오봉도, 화방도, 호랑이, 꽃 등 여러 소재로 다양한 작품들이 현대적 요소와 전통적인 기법을 합한 것으로, 옛 것을 답습하지 않고 색의 아름다움을 가미해 나만의 이야기와 소망을 채색이라는 큰 틀 안에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가정에서 재는 혈압이

의료기관보다 더 정확

미 연구팀 연구 결과

혈압은 가정에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워싱턴 의료센터 보건연구소 내과 전문의 비버리 그린 교수 연구팀이 서부 워싱턴 12개 카이저 퍼머넌트 1차 진료센터를 방문한 고혈압 위험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은 먼저 이들이 ▲의료기관 ▲가정 ▲를 리니이나 약국에 설치된 혈압 측정실(키오스크)에서 재 혈압 자료를 확보했다. 연구팀은 이어 고혈압 진단을 위한 가장 정확한 검사인 24시간 활동 혈압(ABP)을 측정해 의료기관, 가정, 키오스크에서 재 혈압과 비교 분석했다.

비교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가정에서 재 혈압은 ABP와 일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재 혈압은 ABP보다 최고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너무 낮았다. 따라서 ABP로는 고혈압인데 의료기관에서 재 혈압은 고혈압이 아닌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